힐튼 남해, WTA 3년 연속 수상 쾌거

머니투데이 김유림 기자 ›기자의 다른 기사보기
입력 : 2009.11.09 15:32 | 조회 : 105 | 추천: 1 | 나도한마디: 0

힐튼 남해 골프 & 스파 리조트(이하 힐튼 남해)가 올해 월드 트래블 어워드(World Travel Awards) 시상식에서 '한국의 리딩 리조트', '한국의 리딩 골프 리조트'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.

'여행 업계 오스카상'으로 불리는 월드 트래블 어워드는 여행 관광업계 전 부문에 걸쳐 공로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, 힐튼 남해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 이어 3년 연속 이 2개 부문을 수상했다.

장 필립 자코팡 총지배인은 "2006년 한국 최초의 월드와이드 리조트로 개관한 이래 3년 연속으로 한국 최고의 리조트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"며 "앞으로도 컨벤션 관련 프로그램의 강화, 시설 확충 등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갖춰,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"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.